

국제개발협력

이슈 ISSUE 브리프 BRIEF

민주주의 지원

VOL. 13 | 2025. 3

KOICA YP 노유리



전북국제협력진흥원(JBCIA)는 KOICA 영프로페셔널(YP)을 중심으로, 최근의 국내외 개발협력 관련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국제개발협력 이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본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이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들어가며

1. 민주주의 지원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지원 전략

2. 국가별 민주주의 지원 사례 분석

3. 한국의 민주주의 지원 현황과 KOICA의 역할

맺으며

참고문헌

들어가며

21세기 들어 민주주의는 제도적 성숙과 확산을 이루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도전과 후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정치적 양극화, 혐오 표현의 확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찰과 갱신을 요구하는 체제임을 보여준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민선 정부가 무너지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 일상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사실상 후퇴하였다. 튀르키예 역시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강한 통제, 야권 탄압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세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위협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 역시 더욱 정교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지원은 결코 외부의 우월한 모델을 일방적으로 이식하거나, 시혜적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사국의 자율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지원은 동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의 과정이어야 하며, 정치적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한 유연하고 존중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주로 빈곤 퇴치와 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이슈 브리프는 한국이 앞으로 민주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민주주의 지원의 역사적 배경과 국별 사례, 한국의 주요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민주주의 지원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한 전략 방향 제언으로 마무리하겠다.

1. 민주주의 지원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지원 전략

- 민주주의 지원의 역사적 배경

세계의 민주주의 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정치의 주요 흐름 속에서 점차 제도화되고 다변화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다. 처음에는 비교적 제한적인 정치 개입과 경제 원조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에 머물렀으나, 냉전과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그 양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국제 사회의 안정과 경제 재건을 위해 원조를 활용했으며,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적 제도와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1948년 시작된 마셜 플랜은 공식적으로는 유럽 경제 재건이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민주적 정치 질서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다(Burnell, 2000)¹⁾. 그러나 이 시기의 민주주의 지원은 명시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1) Burnell, P. (Ed.). (2000). Democracy Assist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mocratization (1st ed.). Routledge.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개발, 안보, 안정 등의 목적에 종속된 형태가 많았다.

냉전이 본격화된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주의 지원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983년, 미국 의회는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정당, 언론, 시민사회,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주의 지원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제도화되는 전환점이 되었다(Carothers, 1999)²⁾.

탈냉전 시기, 특히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민주주의 지원이 국제개발 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시기였다. 동유럽, 구소련 국가들에서 민주화 전환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경제협력개발기구(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의 다자기구도 민주주의 지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민주주의 지원이 양자적 노력에서 다자적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Youngs, 2001)³⁾. EU는 특히 1993년 코펜하겐 기준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등 후보국의 가입 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지원을 보다 구조화된 방식으로 제도화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이 민주주의 지원을 안보 전략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사 개입과 민주주의 확산을 병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강제성과 외부 주도의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민주주의의 자발성과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었다(Melia, 2005)⁴⁾.

2010년대 이후로는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적 정권의 부상과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지원의 방식도 변화하였다. 기존의 제도 중심적, 기술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지역 공동체, 언론, 청년 등 풀뿌리 참여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bottom-up)’ 접근이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털 권리, 온라인 표현의 자유, 선거 정보 투명성과 같은 새로운 영역도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IDEA, 2024)⁵⁾. 동시에, 유럽연합과 OECD는 민주주의와 개방적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공공 신뢰 회복과 제도적 투명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22)⁶⁾.

민주주의 지원의 역사에서 미국이 선도자로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가시적이고 제도화된 민주주의 지원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을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시기 지원 규모도 크고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해왔고,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을 이끌어온 면이 있어 자연스럽게 ‘중심’처럼 보이곤 한다. 또한, 1983년 설립된 NED도 미국이 선구자처럼 보이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NED는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제도화된 대표적인

2) Carothers, T. (1999). *Aiding Democracy Abroad: The Learning Curv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3) Youngs, R. (2001). *The European Union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4) Melia, T. (2005). *The Infrastructure of American Democracy Promotion*. The Princeton Project

5) Global State of Democracy Initiative,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2024」, <https://www.idea.int/gsod/2024/>

6) OECD, 「Open Government for Stronger Democracie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pen-government-for-stronger-democracies_5478db5b-en.html

기구이다.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국제공화당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등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를 외교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하지만 유럽을 포함한 다른 선진 공여국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먼저, 유럽연합(EU)은 1990년대부터 동유럽, 발칸 국가들의 민주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EU 가입 조건으로 코펜하겐 기준(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을 선정해 사실상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스웨덴,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도 각각의 개발협력 정책에서 인권, 법치, 시민사회 강화를 중시하며 민주주의 지원을 수행해왔다. 예를 들자면 독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FES),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 KAS) 등을 통해 정당 기반의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

-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의 지원 전략

주요 국제기구 및 원조 기관들은 민주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USAID,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독일 국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OECD, UNDP의 최신 전략과 초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미국 국제개발처(USAID)

2024년 7월, USAID는 새로운 '민주주의, 인권 및 거버넌스(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DRG) 정책'을 발표했다.⁷⁾ 이 정책은 지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으로, 민주주의의 쇠퇴와 권위주의의 부상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적 접근과 민주주의 성과 중심이 있다. 통합적 접근은 DRG 원칙을 다른 개발 분야와 통합하여 민주주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⁸⁾, 민주주의 성과 중심은 다른 개발 부문에서도 민주주의 성과를 계획하고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USAID의 자원을 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집중시키고, 전반적인 개발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행정부의 결정으로 USAID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개발 및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SIDA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운영 전략을 통해 정부의 개발협력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파트너 조직을 통한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기여금은 단일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전체 운영, 또는 챌린지 펀드 및 보증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다.⁹⁾ SIDA는 이러한 기여가 투명하고 결과

7) EnCompass, 「USAID's Bold New Democracy Policy: Five Things You need to Know」, <https://encompassworld.com/usaid-bold-new-democracy-policy-five-things-you-need-to-know>

8) USAID, 「New Policy Invigorates USAID's Approach to Promoting Democracy, Enhancing Human Rights and Justice, and Good Governance Around the World」, <https://www.linkedin.com/pulse/new-policy-invigorates-usaid-approach-promoting-democracy-enhancing-qhxc>

9) Sida, 「Operational Strategy 2024-2026」, https://cdn.sida.se/app/uploads/2024/06/03145103/62687-Verksamhetsstrategi-2024-2026_ENG_WEB.pdf

지향적이며 효과적임을 보장한다.

또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분야의 글로벌 개발 협력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¹⁰⁾ 그러나 2025년 3월, 스웨덴 정부는 조지아와의 모든 직접적인 정부기관 협력을 중단하도록 SIDA에 지시하였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최근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¹¹⁾

3)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GIZ는 파트너 국가에서 민주적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모든 정치 수준에서 조언을 제공하고 제도 개혁 과정에 경험을 공유하며, 인권과 성 평등을 핵심 요소로 삼고 정책 자문 및 미디어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¹²⁾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는 2022년 ‘민주주의 강화 이니셔티브(Reinforcing Democracy Initiative)’를 시작하여 증거 기반의 지침과 국제 모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민주적 가치와 제도를 강화하도록 지원 중이다.¹³⁾ 이 이니셔티브는 특히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보 무결성 강화와 같은 현대적 과제를 다루며, 2024년 10월에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여 향후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¹⁴⁾

5) 유엔개발계획(UNDP)

UNDP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략 계획을 통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지를 확대하고, 세계가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⁵⁾ 또한, UNDP는 2024년을 ‘선거의 슈퍼 해(Super Year for Elections)’로 지정하고, 72개국에서 약 37억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를 지원하며 민주주의와 선거 과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¹⁶⁾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을 통한 제도적 변혁과 인권 존중, 평화로운 공존 및 시민 안전을 강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¹⁷⁾

10)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Strategy for Sweden's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24-2028」, <https://www.government.se/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strategies/2024/03/strategy-for-swedens-global-development-cooperation-activities-in-the-areas-of-human-rights-and-freedoms-democracy-and-the-rule-of-law-20242028>

11)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Government instructs Sida to stop all direct governmental agency cooperation with Georgia」,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5/03/government-instructs-sida-to-stop-all-direct-governmental-agency-cooperation-with-georgia>

12) GIZ, 「Governance and democracy」, https://www.giz.de/en/ourservices/governance_and_democracy

13) OECD, 「Reinforcing democracy initiative」,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reinforcing-democracy-initiative/>

14) OECD, 「The OECD Reinforcing Democracy Initiative」,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4/10/the-oecd-reinforcing-democracy-initiative_458501ab.html

15) UNDP, 「Strategic Plan 2022-2025」, <https://strategicplan.undp.org>

16) UNDP, 「A 'Super Year' for Elections」, <https://www.undp.org/super-year-elections>

17) UNDP, 「UNDP in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Democratic Governance」,

2. 국가별 민주주의 지원 사례 분석

- 미국: 제도 정착과 선거 지원 중심

USAID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를 핵심 원조 분야로 삼아왔고, 특히 선거 공정성, 의회 제도 정비, 지방정부 역량 강화, 반부패 제도 구축에 강점을 보인다.¹⁸⁾ USAID는 민주주의 지원을 통해 개발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 하며, 선거의 자유롭고 공정한 진행 지원, 입법·사법 제도 정착 및 개혁 지원,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역량 제고,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 강화의 4가지 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¹⁹⁾

USAID의 대표적 선거 지원 사례로는 나이지리아의 선거를 지원한 것이 있다.²⁰⁾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 국가로, 선거 때마다 대규모 부정, 폭력, 불신 문제가 반복되며 민주주의 공고화에 큰 과제가 있었다. USAID는 독립선거관리위원회(Independent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INEC) 역량 강화를 통해 선거법 자문, 선거인 명부 전산화, 투개표 절차 개선 지원을 이뤄냈고, 청년 및 여성 중심의 선거감시단체 설립과 교육 훈련을 통해 시민 선거감시 네트워크를 지원했다.²¹⁾ 상술한 사업의 성과로 INEC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2023년 선거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었다. 유권자 교육 및 감시활동을 통해 선거폭력도 다수 억제할 수 있었다.

USAID의 또 다른 민주주의 지원 사례로는 우크라이나 제도 정착 사례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이후 탈러시아 개혁과 유럽 통합을 지향하며, 국가 기관의 부패 척결과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였다. 이에 USAID는 의회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입법절차를 개선하며, 정책분석 인프라를 확충하는 의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²²⁾ 이외에도 USAID는 국가반부패국(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of Ukraine, NABU) 및 고위공직자반부패재판소(High Anti-Corruption Court of Ukraine, HACC) 설립 자문 및 기술지원을 맡았으며,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의회의 입법 절차 투명성이 개선되었고 반부패기구가 성공적으로 설립됨과 동시에 초창기 성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시민의 정책감시 및 지역의회 참여가 확대되었다.

USAID의 민주주의 지원 접근 방식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선거 전주기적 지원이다. 이는 유권자 교육, 선거감시, 선거법 개정, 개표 기술까지 선거 전후 전

<https://www.undp.org/latin-america/our-focus/democratic-governance>

18) USAID, 「New Policy Invigorates USAID's Approach to Promoting Democracy, Enhancing Human Rights and Justice, and Good Governance Around the World」, <https://www.linkedin.com/pulse/new-policy-invigorates-usaids-approach-promoting-democracy-enhancing-qhjxc>

19) USAID, 「New Policy Invigorates USAID's Approach to Promoting Democracy, Enhancing Human Rights and Justice, and Good Governance Around the World」, <https://www.linkedin.com/pulse/new-policy-invigorates-usaids-approach-promoting-democracy-enhancing-qhjxc>

20) IFES, 「Nigeria」, <https://www.ifes.org/nigeria>

21) FRIDE, 「Assessing Democracy Assistance: Nigeria」, https://www.files.ethz.ch/isn/130780/1P_WMD_Nigeria_ENG_jul10.pdf

22)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raine, 「The HACC is the Most Effective Anti-corruption Agency, A TI Ukraine Study Found」, <https://ti-ukraine.org/en/news/the-hacc-is-the-most-effective-anti-corruption-agency-a-ti-ukraine-study-found>

과정을 포괄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도 정착과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다. USAID는 제도 설계에 머물지 않고 전산화, 정보공개 시스템, 전자 행정 기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민관 협력을 중시한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민간 부문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민주주의 지원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위기 대응 능력이 있다. USAID는 선거 불복, 혼란 상황 등 정치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

USAID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등 한국의 ODA 기관도 민주주의 지원 시 선거 과정의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선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 제도 운영과 반부패, 법치 기반까지 연계하는 설계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국가 맥락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다층적 전략이 필요하며,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정치적 민감성 인식도 민주주의 지원 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 스웨덴: 인권과 시민사회 강화 중심

스웨덴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국내외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시민사회 중심 접근을 개발협력에서도 강조한다.²³⁾ 또한 스웨덴 정부는 인권 옹호자 및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민사회 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소수자, 여성, 청년)의 정치적 포용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SIDA의 대표적인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지원 사례로는 짐바브웨의 정치적 억압과 표현의 자유 제한을 개선한 것이 있다.²⁴⁾ 짐바브웨는 정치적 억압과 자유 제한이 심각했던 국가로, 인권활동가 및 독립 언론이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SIDA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 및 온라인 언론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는 언론 자유 보호 프로그램, 탄압을 받는 인권활동가의 법률지원, 시민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 사이버 보안 교육 및 디지털 감시 대응 훈련을 제공하는 디지털 권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²⁵⁾ 이로 인해 짐바브웨 내 다수 지역 언론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었고 수십 명의 인권 활동가 보호 및 대응 체계가 마련될 수 있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정책 감시 및 입법참여 능력이 제고되었다.

SIDA의 또 다른 민주주의 지원 사례로는 미얀마의 시민사회를 강화한 것이 있다. 미얀마의 경우,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가 급속히 후퇴했으나, 시민사회의 저항과 국제연대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SIDA는 미얀마 내·외부 CSO를 대상으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는 단체들에게 도움을 줬으며,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성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 네트워크에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젠더 기반 활동을 하였다.²⁶⁾

23) 국제사회보장리뷰,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책 및 전략 동향」, <https://www.kihasa.re.kr/gssr/v.10/%EA%B0%80%EC%9D%84/23/%EC%8A%A4%EC%9B%A8%EB%8D%B4%2B%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C%9D%98%2B%EC%A3%BC%EC%9A%94%2B%EC%A0%95%EC%B1%85%2B%EB%B0%8F%2B%EC%A0%84%EB%9E%B5%2B%EB%8F%99%ED%96%A5>

24) Sida, 「Sida's work in Zimbabwe」, <https://www.sida.se/en/sidas-international-work/countries-and-regions/zimbabwe>

25) Sida, 「Sida's work in Zimbabwe」, <https://www.sida.se/en/sidas-international-work/countries-and-regions/zimbabwe>

26) Sida, 「Sida's work in Myanmar」, <https://www.sida.se/en/sidas-international-work/countries-and-regions/myanmar>

또한 취약 계층을 군부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민간인 사상자 위험을 감소키는 지뢰 제거 활동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²⁷⁾ 그 결과, 군부 탄압 하에서도 시민단체의 생존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연대 또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젠더 기반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가 미얀마의 민주주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었다.

SIDA의 민주주의 지원 접근 방식 특징으로는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 직접재정지원(Core Funding),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유연성, 다양성 및 포용성 강화 등이 있다.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이란, 개발협력의 대상인 시민을 ‘권리의 주체(Rights-holders)’로 간주하고 국가보다는 시민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시하는 것이다. 직접재정지원(CORE Funding)은 CSO에 프로젝트성 지원이 아닌 운영비 중심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유연성이란 민주주의 후퇴 상황에서도 비공식 네트워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간접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및 포용성 강화는 젠더, 소수자, 청년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체를 독립적으로 지원하며 대표성 강화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SIDA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 및 KOICA가 민주주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할 때, 국가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으로 권리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억압이나 민주주의 후퇴 상황에 처한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협력 경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비공식 네트워크나 디지털 공간을 통한 유연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SIDA처럼 CSO에 대한 직접재정지원(Core funding)을 통해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은, 단기성과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기여하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청년, 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를 민주주의의 핵심 참여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정치적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이러한 포용적 접근을 통해 보다 다층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독일: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 중심

GIZ는 독일 외교부 및 연방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BMZ)의 정책 방향에 따라, 파트너 국가들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핵심 개발목표로 삼고 있다.²⁸⁾

GIZ의 대표적인 법치주의 지원 사례로는 튀니지가 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했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구축이 큰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GIZ는 독일 외무부와 협력해 튀니지 지방자치단체총국과 함께 지방 자치행정 교육 방안 및 행정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을 실시했고 새로운 학습 모듈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²⁹⁾ 이외에도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튀니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더욱 시민 친화적이고 투명하며 서비스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튀니지의 지방 당국은 GIZ에서 개발한 지방 거버넌스 기초 교육 과정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폐기물 관리, 교통, 참여 예산 등 지역 참여 계획

27) Sida, 「Sida's work in Myanmar」, <https://www.sida.se/en/sidas-international-work/countries-and-regions/myanmar>

28) BMZ, (2004) 「Human Rights Strategy for German Development Policy」, <https://www.bmz.de/resource/blob/209208/bmz-menschenrechtskonzept-a4-en.pdf>

29) GIZ, 「Building confidence in democracy」, <https://www.giz.de/en/worldwide/57168.html>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적용까지 이뤄졌다.³⁰⁾ 또한, 아는 2018년에 치러진 첫 지방선거에서 멘젤살렘과 같은 튀니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³¹⁾

GIZ의 또 다른 민주주의 지원 사례로는 동방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공공 행정의 발전을 지원받은 조지아의 사례가 있다. 조지아는 구소련권 국가로서 민주주의 제도 전환이 진행 중이며, 공공 서비스의 질과 제공 측면에서 접근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었다. GIZ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차원의 자결권을 존중하며 시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해당 서비스를 위한 핵심 주체의 역량을 개발하고, 시민 참여와 성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 개발 및 지역 경제 개발과 관련된 절차, 제도 및 도구들이 지원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지아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 개발 기금을 강화할 수 있었다.

GIZ의 민주주의 지원 접근 방식의 특징을 꼽자면 제도 강화 중심 접근(Institution-Building), 시민 참여 및 책임성 제고(Participatory Governance), 지방분권 및 자치 확대, 현장 실용성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정책-실행 간 연계 강화(Policy-to-Practice Link)가 있다. GIZ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행정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와 구조를 개선했다. 이를 제도 강화 중심 접근(Institution-Building)이라고 한다. 시민 참여 및 책임성 제고(Participatory Governance)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 및 자치 확대란,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다. 현장 실용성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교육과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행 간 연계 강화(Policy-to-Practice Link)는 정부 정책과 현장 실행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행정개혁과 신뢰 구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GIZ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 및 KOICA가 민주주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할 때, ‘형식적 제도 이식’이 아닌 현지 맥락 기반의 실질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므로 단순한 제도 수입이나 법 제정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강화가 핵심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실현될 때 더욱 생활에 밀접하게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GIZ가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듯이, 한국 및 KOICA도 수원국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면서 시민과 가까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30) GIZ, 「Building confidence in democracy」, <https://www.giz.de/en/worldwide/57168.html>

31) GIZ, 「Tunisia: Greater participation, greater trust」, <https://www.giz.de/en/workingwithgiz/92404.html>

3. 한국의 민주주의 지원 현황과 KOICA의 역할

-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서의 민주주의 위치³²⁾

한국의 민주화 경험은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민중 동원, 역사적 사회·정치적 운동, 경제적 변혁,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성숙이 복합적으로 얹힌 역동적인 진화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궤적은 3·1 운동, 4·19 혁명, 그리고 동시대의 촛불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저항과 집단적 동원이 국가의 민주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반복적인 대중 동원과 사회적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재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민 주권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주기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중의 의지를 정치에 통합하는, 반응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민주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개발협력 대상국과 공유하며 효과적인 민주주의 지원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민주주의 지원을 확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주로 빈곤 퇴치와 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KOICA의 주요 프로젝트 사례³³⁾

KOICA는 몽골에 대한 무상원조의 일환으로 행정제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행정제도 분야에 총 지원액의 9.3%를 투자하여 몽골의 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2007~2008년 세계은행이 몽골에서 진행한 클라이언트 조사 결과, 몽골 국민 다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행정능력 강화와 공공 거버넌스의 개선을 지목했다. 즉, 직접적인 원조보다 정부 시스템의 개혁과 운영 효율 향상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핵심 조건으로 인식된 것이다. ‘세계 거버넌스 지표’에 따르면 몽골은 163개국 중 중하위권에 속하며, 행정 성과, 부패 통제, 법치주의 면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2009년 아시아 재단의 부패척도 조사에서도 몽골 국민 대다수가 부패를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몽골의 국가개발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조 확립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2008년 세계 거버넌스 지표는 한국 정부의 제도 운영 능력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6년 이후 한국은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공무원 채용 시스템, 공직의 안정성 보장, 부패 방지 제도 등이 한국의 행정 성과를 뒷받침해왔다. ICT활용을 통한 행정정보화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전자정부 관련 한국의 경험은 UN 등 글로벌 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32) 김동춘, 김동택, 김형철, 이영제, 장대업, 한재광. (2019). *개발협력관점에서의 한국 민주주의 발전경험*. 한국국제협력단.

33) KOICA, 「요약」, <https://tmslib.koica.go.kr/search/media/abs/CAT000000031925>

주목을 받았다. 최근 KOICA의 연구 결과도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역량을 개발협력의 전략적 자산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온라인 참여도와 디지털 정부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KOICA는 2008년까지 몽골 내 ICT 관련 프로젝트 6건에 약 766만 달러를 투입하며 주요 협력 분야로 육성했다. 전체 대몽골 원조 중 ICT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가까이로 상당한 수준이다.

앞서 설명한 KOICA의 몽골 행정 역량 강화 중점 지원은 국가의 제도적 역량이 약화된 전환기 국가에서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작용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제도 신뢰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토대 마련에 기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맺으며

- 민주주의 지원 추진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

민주주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선거 제도의 정착, 법치주의 강화, 시민사회 육성,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통해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개발협력분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지원은 그 추진 과정에서 개념의 모호성과 해석의 다양성, 내정 간섭이라는 정치적 민감성, 개발원조의 전통적 목적과의 긴장, 현지 맥락과의 충돌 가능성 등과 같은 도전 과제와 맞닥뜨리곤 한다.

먼저, 개념의 모호성과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민주주의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률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것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기관은 제도적 투명성 확보와 선거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다른 기관은 인권 보호와 시민사회 강화를 우선시하는 지원을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존재하다 보니, 수원국 입장에서는 이를 내정 간섭이나 특정한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지원이 내정 간섭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정치적 민감성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기술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성격이 강한 가치체계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민주주의 지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인식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가 집권 중인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외부의 선거 지원이나 인권 활동가 지원을 국가 주권 침해 또는 정권 비판 활동 조장으로 간주하여 원조를 거부하고 시민사회를 탄압하며 관련 외국 단체를 퇴출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발원조의 전통적 목적과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협력의 고전적인 목적은 빈곤 완화, 보건·교육, 경제 인프라 개선 등 사회경제적 개발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 지원은 정치 제도 개혁과 권력의 분립, 언론의 자유 등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며 단기 성과 측정이 어렵고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안정성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부 공여국이나 국제기구들은 민주주의 지원을 별도의 영역 혹은 부차적 분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사회·정치 맥락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접근이 때때로 문화적 다양성, 정치 전통, 사회구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부족 중심 정치, 종교 통치 구조, 전통적 공동체주의가 민주적 제도와 긴장관계를 가지며, 이를 무시한 채 민주주의라는 외부 모델을 이식하려 할 시 저항, 무력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오늘날의 민주주의 지원은 단순한 제도 수출보다는 현지 주도성(responsiveness), 점진적 접근,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발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 민주주의 지원 추진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 관련 전략 방향

마지막으로, 상술한 도전 과제 관련 시사점과 전략 방향을 제안하겠다. 민주주의 지원의 다층적 특성과 정치성을 고려하면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나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참여·권력 구조에 대한 재구성을 포함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지원 과정에서도 기술적 개입과 가치 지향적 개입이 대립하거나 단기적 개발성과와 장기적 제도변화가 대립하는 등의 구조적 긴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기술적 개입과 가치 지향적

개입의 대립에 대해 예를 들자면, 유권자 명부 디지털화와 같은 기술은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선거 감시 및 언론의 자유의 보장과 같은 가치는 권위주의 정부의 반발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 개발성과와 장기적 제도변화의 대립은 간단히 말하자면 개발성과를 빠르게 보고싶은 원조 기관과 수십 년에 걸친 변화가 필요한 민주주의의 특성 사이의 괴리를 의미한다.

정치적 전환기, 권위주의 체제, 하이브리드 정권³⁴⁾ 하에서의 민주주의 지원은 정권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식될 위험성이 높다. 예를 들어, 선거 지원이 특정 야당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공정성 자체가 공격당하거나 인권단체 지원이 외부세력의 정권 전복 시도로 간주되어 시민사회가 탄압당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지원은 권력구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수원국 정부와의 신뢰 형성, 정치적 중립성 유지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민주주의를 지원할 때 정부 중심보다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참여를 유도하고 거버넌스를 감시하며 사회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는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정치화 및 정권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 재정 지속성 부족 및 정부의 법적 제약(외국 자금 수렴 제한법 등)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지 CSO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속 불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로 이해되지만,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있어서는 문화·역사·종교적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서구식 의회제, 정당제도, NGO 모델 등의 외부의 제도 모델이 수용되지 않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원조 조건화”³⁵⁾ 방식의 민주주의 유도는 수원국의 반감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고려하여 KOICA 등 민주주의 지원을 추진하려는 ODA 기관을 위한 전략 방향을 제언하자면, 먼저 정치적 민감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민주주의 지원은 ‘정치 없는 개발’이 아닌, 정치 그 자체를 포함하는 개발임을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정부만이 아닌 시민사회, 지방정부, 미디어, 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 다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협력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일 주체에 의해 수립될 수 없는 다차원적 체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 맥락 맞춤형 민주주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으로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획일적 민주주의 제도 수출이 아닌, 문화·제도적 융합 가능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현지 상황에 적합한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의 강점을 살려 디지털 기술 기반 접근을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민주주의 지원 전략 방향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원국을 지원할 때 표현의 자유, 선거 투명성, 시민 참여 등을 위해 디지털 권리, 전자 투표, 온라인 거버넌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개발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고전적인 개발원조의 목적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빈곤 완화, 공공서비스 접근, 투명한 거버넌스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개발성과를 높이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지원은 단순히 하나의 개발협력분야가 아니라, 정치·제도·문화·가치·참여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정책 공간이다. KOICA를 포함한 공여국 개발협력 기관들은 단순히

34) 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인 권력 분립이나 정치적 경쟁은 제한된 상태

35) 공여국이나 국제기구가 개발원조(ODA)를 제공할 때, 수원국에게 일정한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현지 파트너와 함께 민주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조성자(co-creator)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김동춘, 김동택, 김형철, 이영제, 장대업, 한재광. (2019). *개발협력관점에서의 한국 민주주의 발전경험*. 한국국제협력단.

해외 문헌

BMZ, (2004) *Human Rights Strategy for German Development Policy*, <https://www.bmz.de/resource/blob/209208/bmz-menschenrechtskonzept-a4-en.pdf>

Burnell, P. (Ed.), (2000), *Democracy Assist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mocratization* (1st ed.). Routledge.

Carothers, T., (1999), *Aiding Democracy Abroad: The Learning Curv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elia, T., (2005), *The Infrastructure of American Democracy Promotion*. The Princeton Project

Youngs, R., (2001), *The European Union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국내 인터넷 자료

국제사회보장리뷰,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책 및 전략 동향」, <https://www.kihasa.re.kr/gssr/v.10/%EA%B0%80%EC%9D%84/23/%EC%8A%A4%EC%9B%A8%EB%8D%B4%2B%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C%9D%98%2B%EC%A3%BC%EC%9A%94%2B%EC%A0%95%EC%B1%85%2B%EB%B0%8F%2B%EC%A0%84%EB%9E%B5%2B%EB%8F%99%ED%96%A5>

KOICA, 「요약」, <https://tmslib.koica.go.kr/search/media/abs/CAT000000031925>

해외 인터넷 자료

EnCompass, 「USAID's Bold New Democracy Policy: Five Things You Need to Know」, <https://encompassworld.com/usaid-bold-new-democracy-policy-five-things-you-need-to-know>

FRIDE, 「Assessing Democracy Assistance: Nigeria」, https://www.files.ethz.ch/isn/130780/IP_WM_Nigeria_ENG_jul10.pdf

GIZ, 「Building confidence in democracy」, <https://www.giz.de/en/worldwide/57168.html>

GIZ, 「Governance and democracy」, https://www.giz.de/en/ourservices/governance_and_democracy

GIZ, 'Tunisia: Greater participation, greater trust', <https://www.giz.de/en/workingwithgiz/92404.html>

Global State of Democracy Initiative,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2024', <https://www.idea.int/gsod/2024/>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Government instructs Sida to stop all direct governmental agency cooperation with Georgia',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5/03/government-instructs-sida-to-stop-all-direct-governmental-agency-cooperation-with-georgia>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Strategy for Sweden's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24-2028', <https://www.government.se/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strategies/2024/03/strategy-for-swedens-global-development-cooperation-activities-in-the-areas-of-human-rights-and-freedom-s-democracy-and-the-rule-of-law-20242028>

IFES, 'Nigeria', <https://www.ifes.org/nigeria>

OECD, 'Open Government for Stronger Democracie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pen-government-for-stronger-democracies_5478db5b-en.html

OECD, 'Reinforcing democracy initiative',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reinforcing-democracy-initiative>

OECD, 'The OECD Reinforcing Democracy Initiative',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4/10/the-oecd-reinforcing-democracy-initiative_458501ab.html

Sida, 'Operational Strategy 2024-2026', https://cdn.sida.se/app/uploads/2024/06/03145103/62687-Verksamhetsstrategi-2024-2026_ENG_WEB.pdf

Sida, 'Sida's work in Myanmar', <https://www.sida.se/en/sidas-international-work/countries-and-regions/myanmar>

Sida, 'Sida's work in Zimbabwe', <https://www.sida.se/en/sidas-international-work/countries-and-regions/zimbabwe>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raine, 'The HACC is the Most Effective Anti-corruption Agency, A TI Ukraine Study Found', <https://ti-ukraine.org/en/news/the-hacc-is-the-most-effective-anti-corruption-agency-a-ti-ukraine-study-found>

UNDP, 'A 'Super Year' for Elections', <https://www.undp.org/super-year-elections>

UNDP, 'Strategic Plan 2022-2025', <https://strategicplan.undp.org>

UNDP, 'UNDP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emocratic Governance', <https://www.undp.org/latin-america/our-focus/democratic-governance>

USAID, 'New Policy Invigorates USAID's Approach to Promoting Democracy, Enhancing Human Rights and Justice, and Good Governance Around the World', <https://www.linkedin.com/pulse/new-policy-invigorates-usaids-approach-promoting-democracy-enhancing-qhjxc>